

단국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됨)
2. 문제 번호와 답안 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 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을 금지함)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니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한나라의 사마천이 스무 살 때 강회(江淮) 지방을 유람하였는데, 산천 경치의 정신을 생생하게 잡아서 자기의 문장을 수련했다가 뒤에 『사기(史記)』를 저술할 때, 지난날에 잡았던 정신을 문장에 붙여서 세상에 다시없는 훌륭한 글을 지어 “사기의 일부가 명산대천에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 놓았다. 즉 사마천의 대문장은 산천 경치의 글자 없는 책을 읽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은 다만 글자 있는 책만 읽고 글자 없는 책은 읽지 못하며, 줄 있는 거문고만 타고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른다. 거문고의 줄은 다른 물건이 달는 힘에 의해 소리의 물결을 일으키는 피동적 타성(惰性)의 힘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줄로 소리를 내면 범부(凡夫)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것뿐이고, 그 미묘한 음조를 다한 소리 없는 가락은 실상 줄을 떠난 목은 오동나무 판에 있는 것이다.

진나라의 도연명이 줄 없는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시를 지어 “다만 거문고 속 취미만 얻으면 그만이거나, 줄 위의 소리를 수고롭게 해 무엇 하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줄 없는 거문고를 안 것이다. 다시 한걸음 나아가 말하면, 산은 스스로 높아 험하고, 물은 스스로 넓어 끝이 없고, 대자연의 미묘한 곡조는 줄과 목은 오동나무를 떠난 산수(山水)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다만 글자 있는 책만 읽고 줄 있는 거문고만 타는 사람은 형상으로만 쓰고 정신으로는 쓰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책이나 거문고의 미묘하고 맛있는 취미를 얻을 수 있으랴.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대중문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술 또한 대중문화로서의 특징이 강하다. 처음에 대중문화는 고급문화를 모조한 진부하고 타락한 문화로 여겨졌는데, 진품을 적당히 모방하여 험값에 파는 조악한 그림인 키치(kitsch)는 예술가들이 무시하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키치가 진지하고 난해한 예술품을 감상할 능력이 부족했던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대중 예술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중 예술이 통속적인 것을 미적 형식으로 담아내면서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한 예로, 팝 아트는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것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대표적인 팝 아트 예술가인 워홀은 콜라, 통조림, 메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일상적인 것을 예술품으로 만들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무엇이나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예술의 대중화는 예술의 상업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워홀도 미술의 상업성을 공공연히 표방하며 스스로 자신을 사업 미술가(business artist)라고 하였고, 자신의 작업실을 공장(factory)으로 표현하여 예술의 상업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을 일반 대중도 접하고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술의 대중화와 상업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술이 고고함을 내세우며 자본주의 사회와 단절되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략)……

예술가로 하여금 미적 가치를 표현하기보다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작품을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또, 예술의 지나친 상업화는 예술가가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을 만들게 한다. 그 결과, 작품은 어떤 주제에 대한 작가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중의 취향을 따른 것에 그치고 만다. 이 때문에 예술의 지나친 상업화는 예술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감상자들은 예술이 오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작품이 상품이 되고 예술이 상업이 되어 버리지 않도록 비판적인 안목으로 예술 작품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이 시장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도록 예술의 과도한 상업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20년 가까이 휴대 전화 판매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 업체의 몰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이 업체의 2012년 1분기 점유율은 8%로 감소했고, 일반 휴대 전화를 포함한 순위에서도 14년 만에 2위로 밀려났다. 주가는 10여 년 전의 20분의 1로 줄었고, 상표 순위도 2008년 세계 9위에서 2011년 81위로 추락하였다.

한때 핀란드 전체 수출액의 23%를 차지하는 국민 기업이자 경이로운 성공 기업의 대명사였던 이 업체가 추락한 이유는 ‘이카로스의 역설(Icarus Paradox)’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는 깃털로 만든 날개를 밀랍으로 몸에 붙인 다음 하늘을 날지만, 너무 높이 올라 태양의 뜨거운 열에 밀랍이 녹아서 바다에 추락해 버린 비운의 주인공이다. 기업이 현장의 혁신 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 만든 덫에 빠져 망한다는 의미이다.

통화 위주 휴대 전화를 핵심으로 하고 인터넷 서비스는 덧붙이면 된다는 기존의 성공 틀에 사로잡혀 외부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또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경직되고,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 관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고 보수성을 초래하였다.

출처 : 이동환 외, 『고등학교 사회』

[문제 2] [가]의 트라시마코스과 소크라테스 두 사람 각각의 입장에서 [다]에 나오는 사자의 행위를 평가하고, [나]의 입장에서 사자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 다음은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이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의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강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선생님께서는 저를 칭찬하지 않으시겠지만요.”

“자, 먼저 자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부터 해야겠네. 자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트라시마코스, 그게 무슨 뜻인가? 폴리다마스라는 격투기 선수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자기 몸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를 먹으면 그보다 약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고 몸에 좋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중략)……

“그렇다면.”

하고 그는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정부의 형태들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가령 전제정도 있고, 민주정도 있고, 귀족정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지.”

“그리고 정부란 각 나라에 있어 지배 권력이지요?”

“확실하지.”

“그리고 각각의 다른 정부 형태들은 그들 저마다의 이익을 안중에 두고 법을 전제주의적, 민주주의적, 귀족주의적으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법들을 그들의 피지배자들에게 부과하는데, 이것이 곧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을 그들은 ‘법을 파괴자’로, 부정하다 하여 징벌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 정의에 관한 똑같은 원칙이 있는데, 그 정의란 바로 정부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연히 권력을 가져야만 하므로, 정의의 원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알겠네.”

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그대가 옳은지 아닌지는 따져보아야지.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네는 자네가 나에게 사용하는 말과 금지한 ‘이익’이라는 말을 스스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 그리고 자네가 정의를 규정할 때 ‘강자의’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별거 아닌 첨가지요. 선생님께서도 이 사실은 인정하셔야지요.”

“크고 작고 간에 그건 상관치 말게. 우리는 우선 그대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나.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둘 다 정의라는 것이 일종의 이익이라는 것에는 동의했네. 그렇지만 그것에 ‘강자의’라는 말을 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가지 않네. 그러므로 더 생각해 보아야지.”

“계속해보세요.”

“그러지. 그럼 먼저 물어보겠는데, 자네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배자들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 아니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건가?”

“물론 그들도 당연히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법을 제정할 때 그들은 때로는 바르게 그리고 때로는 잘못 제정할 수도 있겠군?”

“옳습니다.”

“바르게 제정할 때는 그들은 법을 기꺼이 그들의 이익에 맞도록 하겠지. 그런데 만일 실수를 하게 되면 그들의 이익에 반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을 자네는 인정하나?”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법을 피지배자들이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고,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단지 자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네. 생각해 보게. 지배자들이 법으로 명령을 할 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여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또한 정의라고 우리는 인정한 것 아닌가? 그걸 인정했던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배자들이 본의 아니게 그들 자신에게 손해가 되도록 어떤 명령을 할 경우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네는 또한 분명히 인정한 셈일세. 왜냐하면, 자네가 말한 대로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정의라면, 이 경우에는, 오, 가장 현명한 자여! 약자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해 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명령을 받는다는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중략)……

“그러면 트라시마코스. 어떤 지배에 있어서나 그가 지배자인 한,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자기의 역할에 적합한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야. 그는 이 점에 유의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 이것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세.”

출처 : 플라톤, 『국가론』 (출제진 재구성)

[나] 롤스는 사회 정의의 기준이 사회적 효율성이나 최대 행복과 같은 결과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운영해 나갈 원칙에 대해 합의할 때, 합의하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갖게 된 재능이나, 지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가치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롤스는 자유롭게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회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서기 위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을 설정한다.

“(무지의 베일을 쓴)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 또한 나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고 있다.”

- 롤스, “정의론”

무지의 베일이란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마치 베일을 씌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지위, 계층, 능력 등 자신과 타인의 특수한 조건을 알 수 없게 된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약속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사자와 나귀가 함께 맹수를 잡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사자는 자신의 강한 힘으로, 나귀는 자신의 발빠름으로 서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많은 먹이를 잡고 난 후, 사자는 사냥감을 삼등분 했다.

사자가 말했다.

“내가 맹수의 왕이므로 첫 번째 부분을 가지겠다.”

사자가 다시 말했다.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갖기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네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힐지도 몰라. 이걸 탐낸다면 내가 널 흔내줄 테니까. 어서 꺼져버려라.”

출처 : 신현철 옮김, 『이솝우화전집』 (출제진 재구성)

사자가 나귀, 여우와 함께 사냥을 나가서 먹이를 많이 잡아 왔다. 사자가 나귀에게 분배하라고 하자, 나귀는 먹이를 똑같이 분배하여 각자에게 같은 몫을 나누어주었다. 여우는 매우 만족하였지만, 사자는 화가 나서 그의 큰 앞발로 나귀를 때려눕혀 잡아먹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여우에게 화난 목소리로 다시 분배하라고 하였다. 여우는 모든 먹이를 하나의 커다란 무더기로 쌓아 놓고, 그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남겨둔 채 사자를 불러 이를 선택하라고 했다.

사자가 이것을 보고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 좋군. 누가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여우가 슬슬 물러나며 대답했다.

“죽은 나귀가 가르쳐줬습니다.”

출처 : 신현철 옮김, 『이솝우화전집』 (출제진 재구성)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오늘날에는 시장 및 소비자 역할의 변화,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 확대, 그리고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기업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이란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 활동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도전 정신을 말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조직, 새로운 원료, 새로운 상품의 개발,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시장 개척 등 항상 앞질러 새로운 경영 활동을 하여 기업을 성장시키려 노력한다.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소비자의 욕구를 읽어 상품에 반영해야 하며, 기업가는 복잡한 시장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출처 : 육근록 외, 『고등학교 사회』

슘페터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진보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윤은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보상이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상품과 사업 기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인해 경제가 생기 넘치게 된다.

출처 : 이동환 외, 『고등학교 사회』

[나] ◆ GlobeScan* 조사 : 주요국의 기업가에 대한 신뢰도

국가	자국 대기업 신뢰도 (%)	
	2005년	2013년
인도네시아	69	82
케냐	61	78
중국	63	76
인도	64	75
터키	54	73
캐나다	59	73
나이지리아	58	69
독일	35	64
영국	50	59
미국	49	54
프랑스	40	52
러시아	36	44
멕시코	58	43
한국	38	36
평균	52	63

* 국제 컨설팅 회사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 연평균 규제* 증가율

(단위: %)

기간	1998년~2002년	2003년~2007년	2008년~2012년	2012년 말~2013년 6월
규제 증가율	- 6.5	1.8	8.0	7.8

* 2013.6.14.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총 15,007개

출처 : 전경련, 『우리나라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라자호텔의 한 객실. 대한항공의 심이택 사장 등 회사측 대표 3명과 조종사노조 교섭 대표인 민주노총의 양한웅 공공연맹 부위원장 등 노조측 3명이 비밀리에 마주 앉았다. 막후협상을 위해서였다.

……(중략)……

그리고 몇 시간 뒤 대한항공은 △임금협상과 관련된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외국인 조종사의 감축 등을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항공대란을 초래했던 대한항공 노사 분규가 파업 이틀만인 13일 밤 타결됨으로써 “일이 시끄러워지면 노조측의 요구를 뒤에서 들어준다.”는 나쁜 선례를 또다시 남겼다.

출처 : 『한경닷컴』, 2001.6.17.

대기업이 자금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자의적인 계약 해지와 변경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꼽히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3.1.11.

A대표는 4년간 이어온 사업을 접는 소회를 밝히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A대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금 면제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상태로 회사가 폐업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의 일시 상환과 신용카드 사용 중지가 일어날 수 있다. 최소 7년에서 10년간 신용불량자 등록은 회피할 수 없다. 신용을 회복하려면 대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비즈한국』, 2019.4.8.

[다] 2013년 제조업체 수는 총 6,091개로 2012년 6,163개보다 1.2%, 72개가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수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없어진 제조업체는 업종 변경이나 휴업·폐업이라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국가 지속 성장의 견인차인 제조업의 활력이 점차 사그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경닷컴』, 2014.11.25.

산업은행은 올해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 5,000억 원 감소한 170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낮다. 반도체(-3.1%), 자동차(-11.5%), 석유정제(-32.8%), 기계장비(-20.0%) 등 제조업 전(全) 분야에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0.9%), 중견기업(-31.3%), 중소기업(-24.6%) 등 기업 규모별로도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투자 절벽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출처 : 『한경닷컴』, 2019.4.29.

◆ 기업 연구 개발비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구 개발비(억 원)	432,229	465,599	498,545	511,364
전년 대비 증가율(%)	13.2	7.7	7.1	2.6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라] ◆ 국내 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

(단위: 십억 원, 전년 대비 %)

구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국내 총생산(명목 GDP)	761,939	1,043,258	1,377,457	1,730,399
경제 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7.4	5.5	2.3	3.1

출처 : 한국은행, 『국민소득』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계속된 장기 침체와 구조 조정 등으로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태백(이십 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은 3.7%에 불과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8.3%에 달하여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청년 실업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층의 사회 부적응과 일탈이라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 수요의 감소와 실업자 수의 급증에 따라 노동 시장이 사용자에 유리하게 조성되었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정규직을 고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을 일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또 노동 불안은 생산성 저하와 노동자 계층의 불화를 일으켜 사회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